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공약도 '극과극'

동맹·이민·의료보험 정책 정반대 미 우선주의·글로벌 리더십 대립 보호무역·중 강경노선 지속될 듯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정책에서도 '극과극'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을 비롯해 전대 행사를 전후해 내놓은 정책 방침을 통해 드러난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경우 정강정책은 4년 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 기존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캠프를 통해 재선시 중점과제를 공개, 첫 임기에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는 기조 속에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신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중점과제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에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처럼 미군 귀환, 동맹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한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해외주둔 미군 귀환도 주로 중동 등 분쟁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 주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리더십을 일신하겠다는 입장 하에 외교 재할성화, 동맹 재창조를 강조,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미국의 국제사회 신뢰 하락 등을 비판하고 국제질서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며 대중강경 노선을 천명한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양측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해 비참한 실패를 가져왔으며 위기를 더 키운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시 중점과제에서 '코로나19 근절'을 제시,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으

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내세워 대책 설명에 주력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감세로 대폭 인하된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혀 '부자 감세'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종료'를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내놓으며 이민자를 꺼안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총기규제 반대, 낙태 반대,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주장하지만,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오바마케어 계승을 공언했고 강력한 총기 규제, 낙태 찬성 입장도 표명했다.

이런 정책 입장과 관련, 미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 180도 차이가 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방송사들 '트럼프 아무말 대잔치' 대응 고심

CNN 생중계 앵커가 "거짓말" MSNBC·NBC 등은 팩트체크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이 다시 한번 미 방송사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매일 무대의 중심에 설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주장을 빼놓지 않고 생중계로 시청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냐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방송사들이 관례에 따라 공화당 전당대회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 25일 보도했다. 각 방송사의 대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째 날 후보자 명 행사에서 한 연설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뉴스 보도채널 CNN은 가장 과격한 방식을 선택했다.

CNN 앵커 존 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도중 마이크를 잡고 시청자들에게 "지금 미국 대통령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됐거나, 사실을 오도하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인 CBS도 생중계를 중단하고 정치부 기자를 연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분석을 취재했다. 진보 성향인 MS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분석을 화면에 함께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MSNBC는 "트럼프, 근거 대지 않고 부정 발생 시에만 대선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지상파인 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팩트체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앵커 척 토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주장한 데 대해 "꾸며낸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약 진실인 부분만 중계했다면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親)트럼프 성향인 포क्स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중계했지만, 따로 팩트를 체크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태평양 10개 섬나라는 코로나19 청정국

팔라우·미크로네시아 등 방역 선전, 확진자 제로 국경봉쇄로 관광업은 타격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19 청정 국가가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포क्स뉴스는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을 인용해 아갈이 보도했다.

코로나19 청정 국가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마셜 제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투발루, 사모아, 바누아투, 톤가 등 모두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다. 도서국의 특성상 육지의 국가들보

다 국경봉쇄가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포क्स 뉴스는 이들 도서국이 코로나19 성공적 관리를 자랑하고 있지만, 공격적 국경 폐쇄로 관광 수입이 줄고 사업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팔라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리는 BBC에 지난 3월 이후 팔라우 정부의 국경 폐쇄 조치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호텔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경이 열리지 않으면 "호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산불 서울 9배 면적 태워

625건 진행중...진화에 수주 걸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더 번지면서 피해 면적이 서울의 9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번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140만에이커(약 5천666km²)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보도했다. 서울 전체 면적(약 605km²)의 9배가 넘는 삼림이 소실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산불은 모두 625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 소방 당국자들은 이제 불길이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며 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메가파이어(초대형산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7명이 이번 대형 산불로 목숨을 잃었고, 주택과 건물을 1000여채가 화재로 소실됐다.

대부분의 인명·재산 피해는 가장 규모가 큰 2건의 대형 산불(群) 때문에 발생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 동쪽에서 발생한 'SCU 번개 복합 파이어'와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카운티에서 발생한 'LNU 번개 복합 파이어'다.

가장 큰 SCU 파이어는 36만3772에이커를 태우고 이날 오전까지 15%가 진화됐다. 또 LNU 파이어는 35만2913에이커를 태우고 937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을 파괴했다. 진화율은 27%다.

이들 산불군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산불로 대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발병 4년만에...아프리카 소아마비 박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최후의 소아마비 박멸됐다. WHO가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대륙이 소아마비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증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마지막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지 4년 만이다. 4년은 박멸을 위한 문턱에 해당한다.

이로써 소아마비는 천연두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퇴치된 바이러스 목록에 올랐다

WHO는 성명에서 "정부, 기부자, 일선 보건 직원과 지역사회 등의 지원 줄 모르는 노력 덕분에 180만명 가까운 어린이가 평생을 불구로 만드는 마비 증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박애주의 재단을 통해 소아마비 퇴치에 거금을 기부해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이러한 노력들이 에볼라와 싸움 뿐 아니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 : 12029㎡(3638.77평) 건물 : 1929.992㎡(583.823평) 감정가 : 2,054,798,910원 최저가 : 920,550,000원(45%) 유찰 3회</p> <p>공장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 2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